

## 불황 직격탄에 기업후원금 반토막 광주 문화행사 허덕

### 아트광주·비엔날레... 규모 축소 등 불가피

광주 문화계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 문화재단 등이 추진중인 '아트광주 12'는 전년도에 비해 후원금이 반토막났고 광주비엔날레도 해마다 줄어드는 후원금으로 비상이 걸렸다.

▷반토막난 '아트 광주' 후원금 = 광주문화재단과 아트광주조직위원회가 2일 현재 거둬들인 기업 후원금은 1억5000만원. 전년도 3억3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올해 후원금에 행사 기간 중 현물로 지원되는 물품(35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행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훨씬 적어진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후원금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고 지역 기업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문화재단은 올 대회를 치르는데 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시비 3억원 외에 나머지를 민간 기업 후원금과 기업 부스 판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참가 갤러리(81개)나 부대 행사 등의 규모가 전년도(7억원)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대로

라면 자칫 행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등 '아트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보할만한 독특한 전시도 기획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문화계에서 '고만고만한 축제형 비록시장' 등으로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 이유다.

▷광주비엔날레도 후원 몰락 = 지난 2010년 열렸던 제 8회 광주비엔날레의 국내 기업 후원금은 2개 업체가 낸 1억8000만원. 2008년 제 7회 비엔날레 때 17개 업체가 내놓았던 8억 130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특히 ▲2002년 14개 업체 14억5600만원 ▲2004년 11개 업체 15억2700만원 ▲2006년 22개업체 19억5000만원 등에 견주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비엔날레측은 행사 때마다 굵직한 후원금을 내놓았던 광주은행이 2010년부터 광주시 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광주시에만 50억을 내놓아 직접적 지원이 끊긴 게 가장 큰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창설 첫해 160만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면서 국내 및 아시아 미술계의 간판으로 위상을 확고히 수립한 행사치고는 후원금 규모가 초라하기만 하다.

올해도 비슷하다. 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 등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원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제 앞가림'에 급급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한 요인이면서도 기업들의 '문화적 마인드 부재'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단기 사업에만 눈독을 들일 뿐, 문화 발전 등 장기적 안목을 요하는 사업에는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이 주요 기업들의 메세나 사업 참여 규모나 결정 시기를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랑이의 폭염 탈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기온을 보인 1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더위에 지친 벵갈호랑이가 수조에 몸을 담갔다 물이 떨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불안감 커지는 영광원전 6호기 이어 2호기도 한때 고장

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이어 2호기에서도 장애로 인한 출력 감소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20분께 영광원전 2호기의 출력이 10% 하락했다. 영광원전은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펌프 3대 중 주급수펌프 1

대가 보호신호에 의해 자동 정지되면서 터빈출력이 971MW에서 886MW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급수펌프의 정지 원인은 윤활유 통로 부분의 막힘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원전은 원인을 제거한 뒤, 점검을 거쳐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출력을 정상화시켰다. 영광원전 측은 "사고·고장 제로 단

계로, 방사능 외부 누출 가능성과 발전소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광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PWR)으로 지난 1987년 상업 운전전에 들어갔으며, 발전용량은 95만kW다. 앞서 지난 30일 고장으로 발전 정지된 영광 6호기는 고장 부위와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 시험에 들어갔다. 영광원전은 제어봉 구동장치(MG-

Set)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의 일부인 전압조정용 전자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카드를 교체했으며, 시험을 마친 뒤 1~3일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어봉 구동장치는 핵발전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장치"라며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 김재범 유도 첫 금 펜싱 최병철 값진 동메달

남자 유도의 간판 스타 김재범(27·한국마사지·사진)이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관련기사 14·15면>

김재범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엑셀 런던 아래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독일의 올레 비쇼프를 상대로 유효승을 거두고 한국에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다. 2008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비쇼

프에게 금메달을 내줬던 김재범의 4년만의 설욕전이었다.

이 금메달로 김재범은 아시안선수권·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림픽 제패에 성공하며 유도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했다.

펜싱 남자대표팀의 '말형' 최병철(31·화성시청)은 값진 동메달을 수확하며 오심 논란으로 메달을 놓친 신아람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챔피언인 최병철은 남자 플뢰레 3-4위전에서 안드레아 발디니(이탈리아)를 15-14



로 꺾고 펜싱 첫 메달을 신고했다. '우승선 신화'에 도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막강 노르웨이와의 예선 3차전에서 경기 종료 30초를 앞두고 27-27 동점에 성공, 2승1무로 B조 1위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정부-시도지사협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없다"

재정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을 빚어온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일단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전남지사)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긴급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대표들은 지방비 부족분 전체인 6639억원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부는 이에 대해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용 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 소요 2851억원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당초 정부는 증가분 2851억원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요청했다. 최근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상보육 중단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속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 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  
겨울에는 눈축제

# (삿포로) - 대한항공 전세기 3회 취항

# 日本 北海道 ↔ 무안공항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

**8월**

- 09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 13일 2박3일 1,290,000~ (무안공항 왕복)
- 16일 3박4일 1,650,000~ (무안공항 왕복)

昭和和山(쇼와신산)은昭和(일본의 연호)시대에 새롭게 생겨난山? 1944년 6월, 한마디로 어느날 자고 일어나 밖을 보니 보리밭과 소나무 숲이던 곳이 산(402m)이 되어 지금도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